

희망시선

2013 Autumn, Vol.18

<http://www.em21c.com>





‘2013년 8월 하이원리조트에서..’

〈총무기획팀 박미선팀장〉

희망실천

2013 Autumn. Vol.18

- 04 EM실천 2013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가 이후
_ 한국복지대학교 재활복지과 강윤주 교수
- 06 생각나누기(장애인등급제) _ 박수현
- 08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중간관리자 워크샵 _ 박미선
- 10 EM실천 새식구 소개
- 12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한 당사자 모임 _ 황찬희
- 14 의료생활협동조합 교육을 마치며 _ 권장운
- 16 추석프로그램
- 18 독서의계절 가을! 추천도서
- 20 소방교육 _ 황지혜
- 22 2013년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_ 고미나
- 24 수익사업 광고
- 26 NEWS/ 운영위원회

발행일 2013년 10월 21일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전 화 02-875-9744
팩 스 02-875-9965
홈페이지 <http://www.em21c.com>

EM실천

2013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이후

한국복지대학교 재활복지과

강윤주 교수

EM실천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몇년전 우리 학생들의 재활실습을 의뢰하면서 부터이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직업재활시설로 실습을 간다고 하면 대부분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시설로 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본인은 정신장애 분야에서 일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재활실습도 EM실천 같은 정신 장애인 대상 기관에서 받아 보고 싶다고 하였다.

당시 EM실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상황이라 기관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해당 학생을 의뢰하였다. 실습 후, 그 학생은 정신장애 분야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고 하였고, 선배의 영향 때문인지 그 후로 매년 우리 학생들 가운데 1-2명은 EM실천을 재활실습지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서 받아 왔던 피드백이 긍정적 이다 보니 기관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EM실천은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 같은 친숙함과 기대감이 느껴 지는 곳이다.

그 외중에 올해 우리 팀의 2013년 직업재활시설 평가 대상기관으로 EM실천이 포함되었다. 기관을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도 사람들이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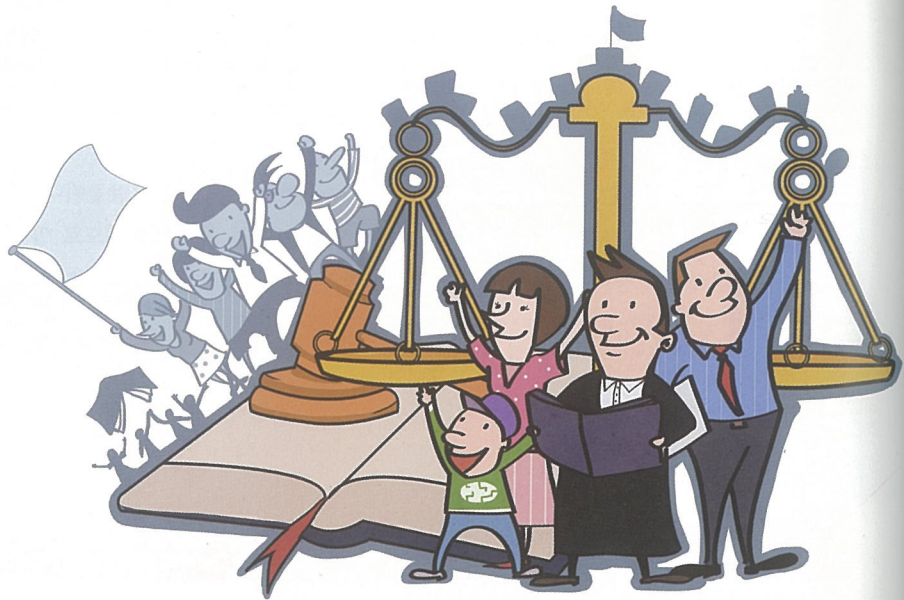
짧은 시간이지만 EM실천에 소속된 사람들은 **따뜻하고 신뢰로운 사람들**이다. 원장님과 직원들의 경우, 평가과정 내내 어느 누구 하나 없이 **밝고, 경쾌하며, 따뜻한 목소리와 태도**로 임해 주었고, 간혹 평가팀과 기관의 견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해당 상황을 **직면하고, 수용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고자 하는 현명함**을 지니고 있었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신체적 제한이나 속박을 통해 통제하기 보다는 이용자 스스로의 자기결정력을 믿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여타 직업재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규모가 작다 보니 **문서관리 및 개인별 파일관리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서관리의 경우, 기관의 근간이 되는 운영규정 개정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기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연간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기관 내부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도 내부결재의 누락 없이 단위사업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외에 연간 사업계 개인별 파일 관리의 경우, 직업재활 서비스의 기본과정을 따르고 있으나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상호간에 서비스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12년부터 기관을 이용해 온 이용자의 경우, 초기면접(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후에 이용자 번호를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수행 이후에는 반드시 평가결과 요약을 통해 직업적 권고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후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재활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재활계획 내에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적응훈련계획이나 고용장면으로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일부 파일에서 재활계획과 적응훈련계획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3년에 사례가 재개되는 경우, 2013년도 재활계획은 2012년 재활계획 및 상담일지, 연말 종결유무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사례회의 후 작성되는 게 필요하다. 그 외에 초기면접 후 바로 종결되는 경우나 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 파일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용자는 초기면접을 통해 기관의 이용자로 접수가 된 상황이므로 이용자 파일은 보관하는 게 필요하다.

기관 평가결과, EM실천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훌륭한 인적자원**,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닌 우수한 기관임**에 틀림없다. 그 배경에는 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보여 준 밝고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가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온 것처럼 이번 시설평가 이후에도 평가과정에서 제기되어지는 몇 가지 논의 사항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가는 과정을 통해 더욱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본다.



6
+
7

〈생각나누기〉

장애인등급제

총무기획팀 사회복지사 박수현

2013년까지 장애인등급제 6단계 → 2단계로 단순화
2017년까지 장애인등급제 완전 폐지



TIP. 장애인등급제란?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을 가진 252만명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뒤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늦어도 2017년까지는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행단계로 **현행 6단계 등급제를 경증과 중증의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1~6등급으로 나뉜 현재의 장애등급제도를 2017년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의학적 기준 중심의 등급제는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바꾸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합니다.

1988년 도입 이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체계의 근간을 이뤘던 등급제가 2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13년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개별 서비스의 수혜자 기준을 포함해 관련 법규가 모두 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조정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2조원 규모인데, 당장 6단계 등급제가 2단계로 줄어들면 대상자가 일부 확대돼 연금 4000억원, 활동지원 5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학적 기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장애판정기준에 직업적, 사회적, 자립 능력 기준을 함께 도입해 판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은 압도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등록제도는 유지하되 장애등급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장애인등급제 장점

- ▶ 국가에서 관리하기 쉽고, 관리비용의 절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 ▶ 확실적인 적용으로 장애인의 불만을 감소할 수 있고 민원 재기시 대응이 용이

장애인등급제 단점

- ▶ 장애인등급제로 인한 불필요한 낙인감 조성
- ▶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한 부족용 초래(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
- ▶ 장애진단은 오로지 의사의 장애진단에 의존
- ▶ 사회복지의 전문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만 분류
- ▶ 장애인 개인의 욕구 및 사회·환경, 직업적, 자립능력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장애인등급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나의 생각나누기

간혹 TV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내용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등급제도의 개편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현행의 장애진단은 오로지 의학적으로만 분류하여 의사의 장애진단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커서 이에 대한 단점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EM실천(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 의학적 진단으로 정신장애3급을 동일하게 판정을 받았으나, 직업재활적 측면에서의 기능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계획을 세울 때에 장애인 등급을 보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학적 진단만으로 장애인등급을 나누기 보다는 장애인당사자의 의학·사회·심리·직업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등급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울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중간관리자 워크숍

총무기획팀 팀장 박미선

2013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하 한울법인)의 중간관리자 워크숍은 2012년 20주년을 맞이하여 논의 하고 공표되었던 한울법인의 운영미션과 비전을 산하시설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 보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M실천은 박미선, 권장윤팀장이 대표로 참여했으며 EM실천이 한울법인과 함께한 시간만큼 한울법인의 미션과 비전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울법인을 형성화한 한울트리를 통해 한울법인의 성장의 열매가 짧지 않은 시간에 많은 시설들이 운영되어 지고 있는 한울법인의 역사를 다시한번 생각하는 워크숍이 되었습니다.

Q1 EM실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미션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열정과 도전으로 사회적약자의 권익을 옹호’

- A1 - 지속적인 프로포절
- 중증, 중증장애인 일할 기회 우선제공
 - 참여자주도프로그램(동아리, 사업별, 팀별)의 운영
 - 경제적 독립을 위한 평균임금 향상

Q2 EM실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비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선도적 정책과 실천을 이끌어 가는 전문사회복지의 허브’

- A2 - 최초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이미지 홍보를 위한 기관명칭변경
 - 사업 세분화
 - 투자를 위한 시설이전
 - ERP시스템 도입



Q3 EM실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가치목표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A3



사람중심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 능력보다는 동기 및 욕구중심의 의사결정프로그램 '자치회'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활동

▶ 매년 지속적인 프로젝트 선정



사람, 조직, 사업영역들간의 연계

▶ 금천지회확장, 금천사회적협동조합활동, 직업재활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와의 서비스 연계



새로운 회복지향, 당사자 중심실천

▶ 반복적 입퇴원 근로장애인, 약물로 인해 힘겨운 근로장애인에게 동기 및 훈련기회 제공



이론과 실천의 순환적 결합

▶ 직업+재활: 일할기회제공 + 경제적독립
: 사회적책임과 역할수행



선도적 사회복지법인

▶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중

"EM실천은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적 직업재활시설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 입니다."

EM실천

가평장애인
종합복지관

금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

중랑한울
지역정신
건강센터

새로물는 집

조은세상

해내기
보호작업장

한울
재단

EM 새식구 소개



우편발송사업부 김혁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혁수입니다.

저는 EM실천이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건물의 지하에 위치할 적에 한동안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직장으로 다시 복귀할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그만두겠다고도 했었고, 지각이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책에 욕심이 많아서 인쇄 쪽에 한 번 해보겠다고 한울센터의 취업지원부에서 말을 하게 되면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작업을 거쳐 EM의 다른 분야에서도 빛을 내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우편발송사업부 최효선

안녕하세요. EM실천의 새 식구 최효선입니다.

EM실천 가족 안에 빠져빠져 ~♪ 행복하고 매일 만나도 항상 반갑고, 선생님들께는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모두들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보기 좋구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사업부 김명규

안녕하세요. EM실천의 새 가족이 된 김명규라고 합니다.

아직은 모든 일에 서툴지만 빨리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M실천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배려심도 깊으시고, 마음이 따뜻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EM실천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편발송사업부 허재혁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열린세상에서 온 허재혁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게 너무 오랜만이라 차차 적응하는 중입니다. 일하는 회원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이름을 다 알지 못했지만 모두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연 많이 해주시고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허재혁이었습니다.



우편발송사업부 명부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명부선이고, 나이는 33세이며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1남2녀중 둘째이고, 취미는 노래 부르기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긍정적인 삶을 사는 데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노래는 디바의 <12월 크리스마스>인데,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이는 33세이지만 마음만은 15세 사춘기 소녀와 같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황지혜

안녕하세요. EM실천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신입사원 황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EM실천을 알게 되어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현수막, 인쇄, DM발송 등 이곳에서의 업무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그저 단순히 전공교과서 제본·복사, 그리고 현수막을 직접 손으로 꾸미던 저로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된다는 생각에 떨리기도 했고, 호기심도 생겼지만 한편으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힘들까? 어려울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고대하던 첫 방문 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차분한 분위기에 놀랐고 아직 서울이라는 곳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환영해주는 직원 및 회원분들에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면접을 보고 다시 기차를 타러 가는 길, 너무 떨리고 긴장도 되고 '진짜 내가 직장인이 되는 건가?' 불과 며칠 전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을 하던 저는 지금 상황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직장인이 되기 위해 또, 서울로 갈 준비를 하는

저를 보니 점점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 입사한 후 그저 모든 게 어색하기 짝이 없고, 심지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사투리 때문에 전화도 마음대로 못 받는 제 모습을 보니 웃음도 났습니다. 그렇게 적응 아닌 적응을 하며 어느덧 한 달이라는 짧다면 짧은 날이 지나갔습니다. 배우며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아직은 실수투성이 인 것 같아 매일 반성하는 마음을 달고 살고 합니다. 항상 맛있는 당근과 조금 아픈 채찍을 함께 주시는 총무 기획팀을 통해 더 배우고 성장하여 이제는 학생 겸 직장인이 아닌 어엿한 진짜! 직장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 힘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EM실천에 계시는 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앞으로 EM실천에서 보내게 될 나날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더욱더 성실한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M실천 화이팅!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한 당사자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대표 : 김락우)의 주최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권을 위한 당사자 모임」을 2013년 8월 20일 (16:00~18:00) 이룸센터에서 갖게 됐다.

이 모임은 정신장애인의 탈원화(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생존권 확보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 옹호의 구심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서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모임은 지난 201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증진법(정신보건법)이 장애 당사자에게 어떤 문제들을 가져다주는지를 짚고 넘어가는 자리였다.

주최측은 이번 정신건강증진법이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나눠서 많은 부분 중증장애인에게 불리한 여건을 제시한다고 지목하고 정부에서 장애인들의 입장을 위해 법 개정을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참석한 당사자들은 모두다 긍정적으로 대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이 재활을 통해 사회 내 복귀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된 법 내용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며 법 개정들을 다시 점검해야 함을 호소했다.

또한, 김대표는 당사자모임에서 발표됐던 당사자들의 뼈아픈 호소들을 내년에 시효 될 개정법에 반영하기 위해 2013년 10월 2일(14:00~) 당사자들과 함께 민주당 최동익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는 이번 당사자 모임에 참석해서 강제입원, 사회의 따가운 눈총, 치료제공자와 불충분한 대화 등으로 많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가 얼마나 유린되고 있는지를 절감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안전과 권리는 앞으로 많은 부분 신장되어야 하고 장애인당사자 스스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료생활협동조합 교육을 마치며.....

직업재활팀 팀장 권장윤

8월 무더위가 어느해 보다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의료생활협동조합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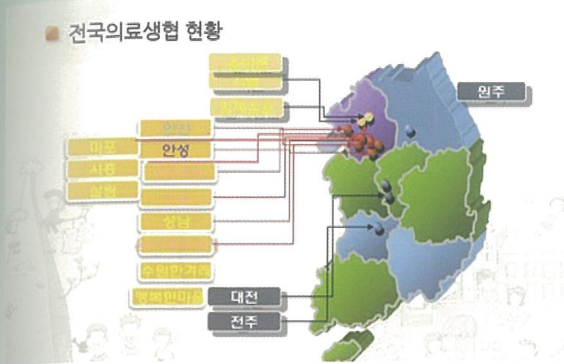
요즘 협동조합이 핫이슈로 떠올라 무척이나 궁금했었는데 이런 교육이 나에게 오다니....

8월부터 9월까지 총 5회기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실시되었다. 드디어 8월 8일 첫 의료생활교육이 시작되었다.

5회기 교육과정은 너무 짧아 의료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그쳐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다른 직원들을 제쳐두고
운 좋게 의료생활교육을 듣게되어 소감보다는 부족하지만 아래와 같이 교육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의료생활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조직이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한 시설을 설립, 운영하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와 협력하여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그리고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특징
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단체, 예방보건사업과 이것을 보장하는 제도 확충을 중요시 한다. 그리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이 주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모임, 반모임을
구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전국의료생협 현황



2. 의료생협 현황

구 분	조합원수	출자금	활동조합원수	기초조직수 (소모임/반)
2012년 목표	27,000 세대	38억	1,390명	85/170
2012년 12.31	36,669 세대	49억	1,780명	121/180
2013년 목표	45,250 세대	61억	2,840명	176/206

요즘 의료생협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보건 의료 대안으로 출발했던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운동이 2014년이면 20년을 맞이한다. 최근 소비자의료생활협동조합이 하나 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회협)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까닭은 영리형 의료생협과의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와 더불어 원래 의료생협이 지역주민(환자), 의료인,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복합이해당사자가 결합하여 만든 조직이기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의료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와 돌봄 등 보다 포괄적인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시작되었다.

구 분	사회적기업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비영리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립	고용노동부인증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일자리제공 /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형 / 기타 / 지역 사회공헌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지역사업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 (취약계층배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일 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위탁사업형) 정부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공익증진형)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증진 보건 의료분야는 의료사업은 100% 지역사업형공익적 사업으로 인정
사회적목적 판단기준	취약계층비율	규정없음	주사업종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30억원 이상	·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없음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 / 100 이상 ※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이윤의 2/30이상은 사회적목적 위해 사용	· 배당가능 (납입출자금의 10/100 초과금지)	· 배당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감독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 관리내용 없음 (상법등에서 준용)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사항, 장부, 서류 등 검사 ·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넉넉하고 흥겨운 한가위 풍요로운

누가누가 송편을 잘 빚나?

보름달같이 풍성한 추석연휴 보내셨나요?

EM실천 식구들 역시 추석을 맞이하여 대표 명절음식 중 하나인 '송편빚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삼색의 멥쌀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열심히 반죽해주시던 박미선팀장님 덕분에 회원들은 삼색의 멥쌀 반죽을 가지고 오랜만에 요리실력을 뽐내었습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송편이 만들어졌는데 반달송편, 웅골차게 꺾꾹 눌러 만들어 놓거나, 송편을 찢고 나면 다 섞이니, 본인이 만든 것에 표시를 해두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중 단연 으뜸은 송편인지, 만두인지 알 수 없는 대형 송편~!

조금씩 송편을 찢고 있는 동안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제기차기, 팔씨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추석 팔씨름 우승자인 우편발송팀의 우승자인 임영호씨가 올해 역시 우승하여 EM실천 팔씨름계의 넘볼수 없는 큰 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으랏차차!!



아들아들 종이탑쌓기



디자인팀 경아씨의 작품!
송편처럼 예쁜아들 낳으셨다는..

제가 만든 송편이랍니다.



충무팀 박수현씨의 작품
"남"님 강조하심!!



맛있게 익어가는 송편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동안 송편이 맛있게 익어가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평소 열심히 일하던 작업장에 퍼져 배꼽시계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
습니다.

박미선, 권장윤, 이진숙 팀장님께서 오늘은
마스터 셰프가 되어 각 팀별로 제일 잘 빚은
송편을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지
하게 상의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
냈습니다.

송편 예쁘게 빚기의 우승팀은?
손선애씨가 있었던 1팀에게로 돌아갔고,
우승팀에게는 상품이 지급되어 풍성한
추석 프로그램을 보냈습니다.



마스터셰프 이팀 우승자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열심히 송편 만든 자, 열심히 먹어라!

각자의 개성에 따라 모양 역시 제각각이었으나 맛은 역시 GOOD!



독서의 계절 가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회복지실천가들을 위한
신간 도서안내

18
+
19

도서출판 EM커뮤니티는 2005년 저소득여성계층의 소자본창업모델로 시작한 사회복지전문도서출판사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을 시작으로 한 EM커뮤니티는 사회복지전문출판사로써 현장과 학계에서 활동중인 여러저자분들의 도서출판을 통해 열정의 (예비)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되는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EM커뮤니티는 사회복지관련도서를 통해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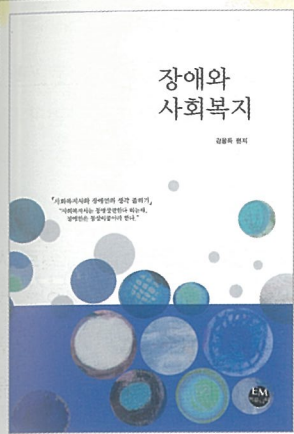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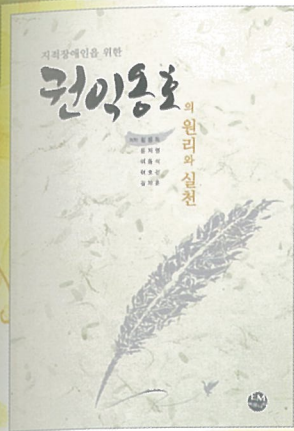
‘이제는 거주시설의 상식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의 장애인거주시설은 학교와 같은 건물 1층 한쪽 날개에 원장실과 사무실이 있고, 반대쪽 날개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는 식당이 있고, 2층에는 미주보는 방에 8명씩 함께 생활하고, 화장실은 대규의 공용 화장실이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양이 상식적인 시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상성**을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의 거주시설은 아파트 1체에 4~5명의 장애인이 함께 살고, 이런 아파트 5~6채와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한 지원사무실을 합쳐서 운영되는 형태가 상식적인 거주시설이어야 한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거주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역할과 이미지도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무기력한 환자’ , ‘의존적인 클라이언트’ 로 칭해졌다. 이제는 ‘이용자’ , ‘서비스 이용자’ 와 같이 의존성이 제거된 역할과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민(tenant)’, ‘시민(citizen)’, ‘고객(customer)’, ‘소비자(consumer)’ 등과 같은 더 능동적인 역할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는 자기결정과 자립생활을 전제 하는 성인 거주시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려 하였다.

한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미래

최임성만 편



지적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의 개념과 옹호활동 실천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은 외국의 경험과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지적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의 개념과 옹호활동 실천을 위한 주요한 기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옹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류 틀을 개발하고, 각 분류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례들을 발굴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도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장애인 권익옹호서비스 실천 노력이 가시화되길 희망한다.(저자일동)

『사회복지사와 장애인의 생각좁히기』

『사회복지사는 동병상련한다 하는데 장애인은 동상이몽이라 한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3~4년이 지나면 많이들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학교 공부는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인것 같기도 하고, 크게 잘못도니 말인것 같기도 하다. 우리 전공교육이 學而不思(학이불사)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크게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그러나 현장 실천에 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험한 독선이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장은 思而不學(사이불학)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의 학문과 실천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學(학)과 思(사)가 공존하면서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와 사회복지 머리글중에서)

♣ EM커뮤니티 출판도서 현황

사회복지사 1급 문제집 1,2,3(2005)

사회복지법제론(송인규의 저, 2005)

사회복지개론(성민선의 저)

정신보건의 이해와 실천패러다임

(강상경 · 김문근 · 김이영 · 이용표 저, 2006)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지원(다나카 히데키 저, 김용택외 옮김)

장애인의 시민권과 영국의 지역사회보호(김용득 옮김)

사회연대의 이론과 실천(정재훈 · 김태희 옮김, 2006)

사회복지법원론(송인규 · 전영상 · 정재훈 저)

지역복지네트워크의 이론과 전략(이용표 · 유영준 저, 2006)

사례관리와 케어매니지먼트(김찬우 저, 2006)

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이봉원 저, 2006)

성공적인 자원동원인란(노연희 저, 2006)

복사골이야기(곽병은, 2006)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쟁점과 대안

(이봉주 · 김용득 · 김문근 저, 2008)

장애인거주시설정책의 이해(김용득 · 변경희 · 임성만 저, 2009)

장애와 사회복지(김용득 편저, 2012)

지적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 원리와 실천(김용득 · 윤재영

이동석 · 이호선 · 김재훈 저, 2013)

한국장애인거주시설의 미래(임성만 편, 2013)



경험치 두배! 리얼했던 소방교육체험

총무기획팀 사회복지사 황지혜

입사 3주째! 입사한 후 첫 프로그램 진행!

적응훈련생 분들과 소방교육을 하기 위해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안전체험관' 으로 떠났다. 프로그램 당일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려 아쉽긴 했지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적응훈련생 분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안전체험관 내부에는 장비, 교육장, 시설 등이 잘 갖춰있어서 기대가 되었다. 안전체험관 담당자께서는 지진, 태풍, 화재, 교통안전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친절하게 교육을 진행해 주셨다.

첫 번째 지진 대피 교육!

실제 삼풍백화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4D영화가 상영되고 지진에 대한 사례 및 피해예방법이 담긴 영상을 보았다. 지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실내외에서의 지진체험을 하게 되었다.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시 대피 요령에 대한 체험이었는데 실제 경보가 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되니 적응 훈련생 분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방법, 지양해야할 태도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 태풍체험관!

태풍에 대한 사례와 예방법이 담긴 영상을 본 후 실제 체험이 시작되었다. 남자 훈련생 분들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비바람까지 체험하였다. 우비를 입었지만 옷이 다 젖은 모습을 보고 태풍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태풍이 왔을 때에는 '집밖으로 나가지 말자!' 는 큰 교훈을 얻었다.





세 번째 화재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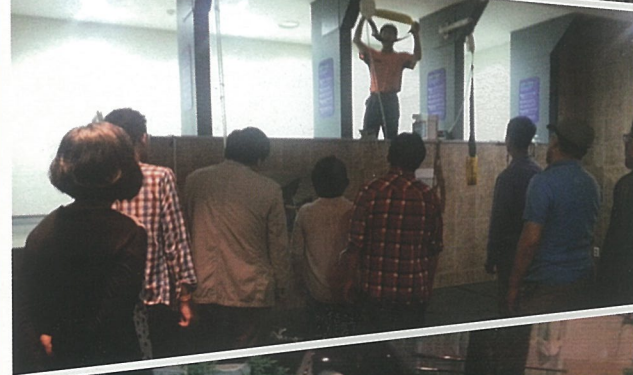
실제로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노래방'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현실감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

훈련생 분들이 신나게 한 곡조 노래를 뽑고 있는데 어디선가 매운 연기가!!! 불이야!!!!

훈련생 분들 화재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여 모두 손으로 코와 입을 보호하고 비상구 불빛에 따라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노래방을 빠져나왔다.

네 번째 교통안전 체험관!

실제 버스와 지하철과 매우 흡사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 모두 집중했다. 안전 벨트의 소중함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지하철의 의자시트와 손잡이, 기둥이 더 안전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교육을 끝내고 나니 해와 사고 모두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며, 체험했던 공간이 모형이라는 느낌보다 실제와 똑같아 더 현실감 있게 체험했기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도 두 배가 되었던 것 같다. 이번 안전 체험관 교육이 적응훈련생 분들이 안전사고가 닥쳤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2013년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Let's Go~북한산’



총무기획팀 사회복지사 고미나

22
+
23

매년 서울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최되는 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우리 EM실천 종사자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참석을 했다.

이번 주 내내 추적추적 내리던 비는 등반대회 당일 날에도 이어졌고, 비 때문에 등반대회의 참여율이 저조하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다.

그칠 줄 모르는 빗속을 뚫고 등반대회 모임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우려와는 달리 많은 사회복지종사자와 사회복지학부 재학생들이 너나할 것 없이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빼곡히 서성이고 있었다.

짧은 행사를 끝으로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었다.

마치 등반의 시작을 알리듯 비가 서서히 개이고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겼다.

등반길을 보니 벌써부터 한숨이 턱~~ 하고.. 우리들은 서로의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며 웃음이 났다.

등반길은 매우 좁고 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질서 있게 이동했다.



3분의 1정도 왔을까..?

맑은 계곡물에 수건을 흠뻑 적서 얼굴과 목을 감싸니 이보다 더한 천국이 있으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중간지점을 기점으로 내려오는 길..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뽀얗하게 쌓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땀이 흥건했지만,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 입에 더위가 훅~~하고 가시는 듯 했다.

내려오는 길은 수월했지만 지쳐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보다는 속도가 뒤흔었다.

하지만 em실천의 일부 직원들은 가속도가 붙어서인지 마지막 스퍼트가 굉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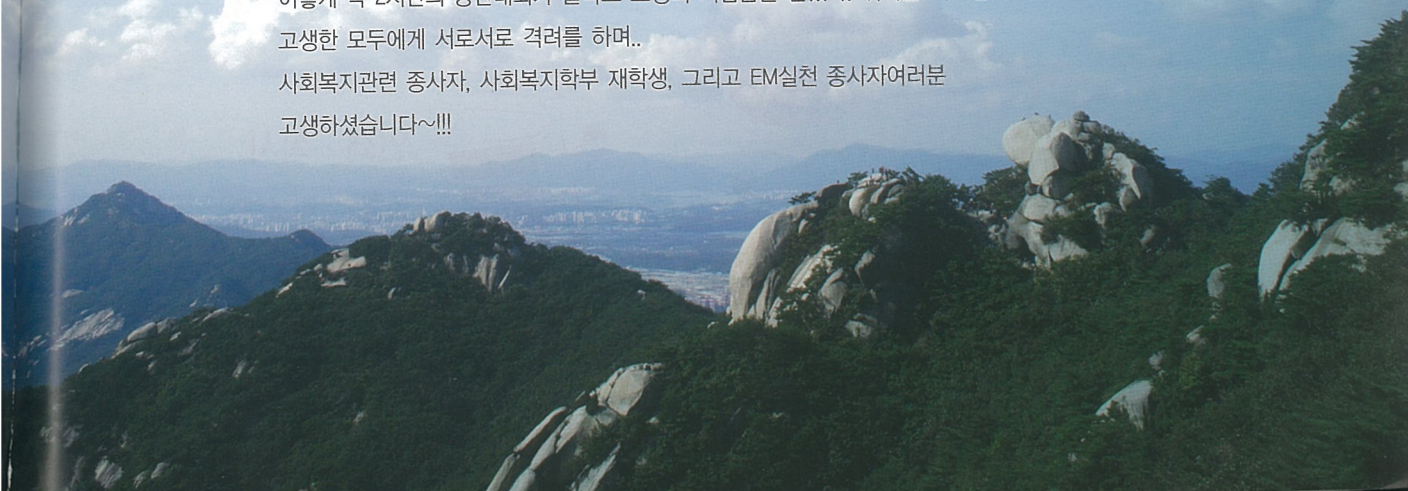
(산 속의 날다람쥐를 보는 듯 한 경험을..^^)

이렇게 약 2시간의 동반대회가 끝나고 소정의 기념품을 받았다. 귀여운 머그컵세트!!!

고생한 모두에게 서로서로 격려를 하며..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사회복지학부 재학생, 그리고 EM실천 종사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직업재활시설로써 사회적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에게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을 통해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역할수행을 돕고 있습니다.

노동 부사회적기업 2011-8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24
+
25

현수막 · 배너

현수막디자인
출력 및 가공
납품 및 설치



현수막

인쇄 · 복사



인쇄 · 복사

명함	리플렛
봉투	자료집
수첩	소식지
달력	단행본

1. 디자인-인쇄-우편·택배 발송에 이르는 **ONE-STOP** 서비스
2.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3. **빠른 납품** 서비스

우편발송

우편발송



DB 출력관리
우편물 봉합 및 발송
정보 보완 관리
반송우편물 관리

NEWS



7/5

2013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시설 평가

7/17

아모레퍼시픽
자원봉사

7/30

청소년쉼터
자유세대 자원봉사



8/13

성교육 실시
(부천청소년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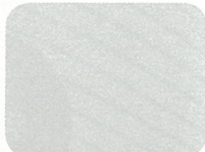
8/20

정신장애인지역사회
생존권 연대 당사자 총회
참석(황전희 당사자 외)



8/30

법인 교육 참석 '정신
장애인과 일할 때 경험하는
딜레마' (고미나, 박수현)



9/10

국립재활원
직업재활교육(박수현)



9/14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여
(북한산 둘레길)



9/16

추석명절프로그램
(송편빚기)



9/24

소방교육 보라매공원
안전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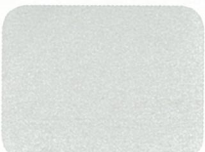


9/24

가족모임 '희망회'

9/24

서울장애인직업재활
시설협회 정책토론회



기관방문...

- 7/9 보라매보호작업장 유주혜 실습생
- 7/22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이지혜님 외 3명
- 8/5 서초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유승희님 외 1명
- 9/12 서초 열린세상 석진아님 외 1명
- 9/25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고영환님 외 1명

2013년

3차 운영위원회



2013년도 3차 운영위원회가 2013. 8. 27(화)에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이용표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9명의 운영위원이 참여하였고 2013년 상반기 운영보고, 보건복지부 시설평가보고, 복지일자리보고, 하반기 직업재활 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안내, 기능보강사업지원에 보고안건과 특별목적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 안건이 회의안건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된 장재원 가족대표님의 감사패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대표로 운영위원회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주신 장재원 운영위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희망 · 성공 · 도전기”

EM Empowerment Society 실천